

가정통신 2020 제9호 자/녀/사/랑/하/기

건강한  
수면습관이  
자녀의  
뇌건강을  
좌우합니다.



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수면 문제입니다. 자녀의 발달은 수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나이에 맞는 적당한 수면은 **자녀의 신체 성장을 돋고 집중력, 기억력, 행동, 학업능력, 감정조절을 도와 학업과 정신건강을 향상**시킵니다.

**부모님은 자녀가 수면 건강과 관련된 좋은 습관을 갖도록  
지도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**



01

## 잠은 왜 중요할까요?



잠은 단순히 우리 몸이 쉬는 상태가 아닙니다.

자는 동안 뇌에서 **성장호르몬이 분비되어 키가 크고 신체발달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.** 수면 중에 불필요한 뇌신경은 가지치기가 되고 **발달에 필요한 신경회로는 더 튼튼히 연결되면서 건강한 뇌발달이 이뤄집니다.**

특히, **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얻은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바뀝니다.**



**두뇌가 발달해 나가는 아동기에  
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 성장뿐 아니라  
장기적인 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 
줄 수 있습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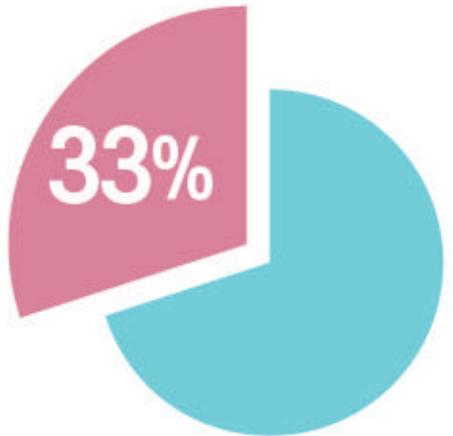
## 02

# 우리 아이는 충분히 자고 있을까요?

초등학생의 적정 수면시간은 **9~11시간 정도**로 알려져 있습니다.

하지만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,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8.7시간으로 권장 수면시간보다 짧았고,

**33%의 초등학생이 수면이 부족**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.



**수면 부족의 원인**으로 가정학습과 학원 등 ‘**공부**’가 1순위를 차지했고, 게임, 인터넷 사용을 그 다음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

**1순위**      **공부** (가정학습과 학원)

**2순위**      **게임, 인터넷 사용**



**초등학생은 공부를 위한 기초학력과 기초체력을 다지는 시기입니다.**  
**자녀가 과도한 학업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보십시오.**

03

## 수면은 자녀의 정서·행동발달에 중요합니다.

아이들은 잠을 충분히 못 잘 때, **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 
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더 쉽게 짜증**을 내게 됩니다.  
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**우울하고 불안**해지기 쉽습니다.



자녀의 건강한 정서·행동발달과  
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 
**평소 자녀의 수면 건강을**  
**점검해보십시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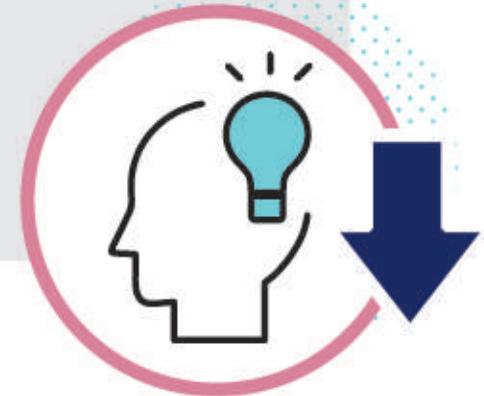
04

## 규칙적인 수면습관이 중요합니다.

충분히 자는 것만큼 **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수면습관**이 중요합니다.



아동의 수면습관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,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한 아이들은 총수면량과 상관없이 기억과 학습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고합니다.



연구자들은 **불규칙한 취침시간**이 생체리듬을 교란해서 **인지발달을 저해**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

평소 **규칙적인 수면습관은 주말이나 방학이 되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.**

05

## 잠자기 전 두뇌활동을 줄이고 일정한 준비과정을 세워주세요.

잠자기 전 격한 놀이는 뇌를 흥분시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.  
자녀에게는 자라고 말하고 다른 가족들은 밖에서 TV를 보거나  
시끄럽게 대화를 하면 자녀는 쉽게 잠이 들지 못합니다.  
**가족 모두 조용한 분위기로 자녀에게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 
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**



**자기 전 두뇌활동을  
줄여나가는  
준비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 
곧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 
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.**

ex)‘목욕하기-가벼운 책 읽기-잠자기’ 식으로  
매일 일정하게 순서를 정해보십시오.

## 06

# 자녀의 수면 건강을 해치는 미디어 사용!

잠들기 전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 
빛과 소음으로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.

특히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 
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 
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을 방해합니다.

잠들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 
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도록 지도해주세요.



잠들기 전에는  
**스마트폰 전원을 꺼두거나**  
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 
**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**  
**놓아두도록 지도해주세요.**

07

## 자녀의 수면 건강을 위한 부모의 역할 (수면위생)

- 01 매일 **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**을 정해줍니다.
- 02 지나친 낮잠 시간이나 **자주 누워있는 습관**을 줄여줍니다.
- 03 침실은 **조용하고 어둡게** 합니다.
- 04 어두운 방에서 잠들기 힘들어하면 **온은한 간접조명**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05 방은 **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야** 하고 적절한 **습도를 유지**합니다.
- 06 자녀가 **좋아하는 담요나 인형**을 침대 근처에 두어 **편안함**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.
- 07 매일 **규칙적인 운동**을 권유하되, **수면 직전 격한 운동은 피하게** 합니다.
- 08 취침 전 많은 양의 **음식**은 소화 장애나 잦은 배뇨로 숙면에 **방해가 되므로 제한**합니다.

## 다음과 같은 수면 문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.

**자녀가 성장하는 동안** 수면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 
**수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**

아동기에는 **수면 중에 갑자기 깨어 심하게 울며 달래기 힘든 애경증과,**  
**수면 중에 일어나 걸어 다니는 수면보행증(몽유병)**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 
아동에게도 코골이와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,  
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

심리적으로 **우울하거나 불안해지면 악몽을 꾸기도 하고**  
**수면습관이 변하여 불면이나 과다수면을 보입니다.**



**이와 같은 자녀의 수면 문제가 관찰되면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  
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십시오.**

**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**

**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**

**(02-6959-4638)에 문의해주세요.**



**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**  
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

본 뉴스레터는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 
의뢰하여 제작한 “자녀 사랑하기” 9호이며,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.